

진안 안천면, 한마음 한뜻으로 라벤더 팜 조성

이장협의회 등 60여명 참여 ... 신지천 습지 상류 1800평에 라벤더 1만7000포기 심어

진안군 안천면(면장 최방규)은 30일 그동안 용담호 홍수조절 용지로 방치되어 온 괴장리 신지천 생태습지 일원의 홍수터를 경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안천면과 안천면이장협의회(회장 문종식),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정해용), 청년회(회장 한완종) 등 각 사회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지천 습지 상류 1,800평에 라벤더 1만7,000포기를 식재했다.

이번 사업은 용담댐 상류 홍수조절용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에 최초로 라벤더 팜을 조성한 것으로 연차적으로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댐 주변지역 마을 소득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천면은 지난 2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와 MOU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 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안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와 병행하여 생태습지 정비와 라벤더 팜을 이용한 명품 유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천의 관문에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안천면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함께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 수자원공사 용담지사, 안천면, 진안군 등과 협업함으로써 자립형 지역발전 모델의 선진 사례가 되고 있다.

최방규 면장은 "이번에 조성된 라벤더 팜은 진



진안군 안천면과 안천면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지천 습지 상류 1,800평에 라벤더를 식재했다.

안, 장수, 무주, 금산 등을 이용하는 국도 13호, 30호 상의 주요 길목에 위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휴(休)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댐 주변지역

발전사례의 선지역으로 각종 행사유치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소통 역할 '대화경찰관' 배치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30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마찰을 증대하기 위해 현장에 대화경찰관을 배치했다.

정보와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된 집회현장 대화경찰관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대화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집회시위 참가자의 불편 요구사항을 해소했다.

이날 집회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대화경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식별 표시를 달고 독자 활동으로, 집회시위 참가자와 현장경찰관 사이의 중립적 입장에서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소소한 마찰까지도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농협발전 상생협, 동계농협 육묘장 일손돕기 실시

순창군 농협발전 상생협의

회(의장 장경민)는 최근 동계농협이 운영

하는 벼 육묘장에서 농협발전 상생협의 회원

원들이 육묘용 모판 이동작업, 농가에 모판 출하

작업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순창관내 상생협의 회원 과 동계농협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 곳에서는 해마다 논 510ha에 심을 수 있는 모판 14만장을 길러 농가에 공급한다. 덕분에 600여 벼 재배농가들은 주둔한 벼가 눈에 도착하면 이앙작업만 하기 때문에 못자리 작업에 따른 많은 일손을 덜 수 있게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서, '더하고 빼고' 캠페인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전북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교통안전 더하고(+), 빼고(-) 캠페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더하고 빼고'란 안전띠·안전모는 더하고 과속·음주운전은 빼자는 뜻으로, 남원서에서는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플래카드 게시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행라철이 다가옴에 따라 홍보활동과 더불어 안전띠, 안전모, 과속, 음주운전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이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과 더불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병해충예찰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에서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드론 및 항공예찰을 강화하고, 조사된 고사목은 하반기(11~12월)에 집중 방제할 계획이다.

또한 숲길잡이벌레·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해 사전 예찰을 강화해 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산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갈색 날개매미충·꽃매미 등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은 시·군 농업 부서와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농소파출소,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간담회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농소파출소(소장 권기홍)는 30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상담사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의 주안점으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계할 것과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해함으로써 임시방편식의 순간대처가 아닌, 행위자의 폭력성행 교정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로 가정폭력의 근본원인을 뿌리 뽑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권기홍 소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고현장에서도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경찰과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완전한 치안망을 만들으로써 피해자 보호 역량을 증대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순창서, 어린이집 방문 '우리아이지킴이키트' 배부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최근 순창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우리아이지킴이키트를 배부했다.

'우리아이지킴이 키트'는 실종아동 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키트 안에 든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지문과 유전자(구강세포)를 채취·보관한다

가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경찰청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매칭을 통해 실종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는 데 활용된다.

이날 키트 배부 현장에서 경찰관은 '우리아이지킴이 키트' 취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키트 보관과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알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